[2014. 3. 22 사회복지직 한국사 8책영]

여명(여명(黎明)) 한국사 문동균 http://cafe.daum.net/mdkhistory 경단기, 법·검단기, 소방단기 대방 고시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태동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2	4	3	4	3	1	1	1

∴ 10번 문제는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 비교문제임

1. (4)

위만 왕조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농업과 무기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이 융성해졌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고 중국과 삼한 사이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濊)나 진이 중국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 ①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 ② 위만은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이후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 변경을 지키는 박사에 임명되었다.
- ③ 위만 유입 이전의 단군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단군 조선은 요령을 근거지로 성장하여 만주,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

2. (1)

①은 식민사관 중 정체성론이다. 정체성론은 한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도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당시의 조선사회가 10세기 말 고대 일본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봉건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3. ①

제시된 사료는 정조 때 (1791) 육의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인정한 신해통공(辛亥通共)이다.

- ① 포구에 객주나 여각이 크게 발달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 ②③④은 고려. 조선 억상정책을 펼쳤던 조선과 달리 상공업의 진흥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려는 정부차원에서 도시에 관영상점(다점, 주점)을 설치하고 화폐 사용을 장려하였으나, 유통이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4. (4)

제시된 '역법서'는 세종 때 제작된 <칠정산>이다.

칠정산(七政算)은 1444년(세종 26)에 이순지와 김담(金淡)이 우리나라 역대의 역법을 정리한 위에서 원나라와 명나라의 역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이루어졌다. <u>외편은 서역(西域)의 회회력법(回回曆法)을 연구하여 해설</u>한 책인데 비해, <u>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u>한 책으로서, <u>서울을 기준</u>으로 한 해와 달, 행성들의 운행이 나타나 있다. ④ <농사직설>은 세종 때 문신인 정초·변효문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 농법을 정리한 농서이다.

- ① 고려시대에는 우경(牛耕)에 의한 심경법(深耕法)이 행해지고 2년3작의 윤작법이 시행되었다.
- ② 이모작의 전국적 시행은 조선 후기이다.
- ③ 삼국 시대의 농법이다.

5. ③

<삼국사기>

-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u>녹읍</u>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 성덕왕 21년,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 경덕왕 16년, 다시 녹읍을 지급하였다.

6. (2)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 반포되었다.

② <조선경국전>은 태조 때 정도전이, <경제육전>은 조준이 편찬하였다.

➡ 조선의 법전

법전	시기	편찬	특징
조선경국전		정도전	여말 선초의 조례를 정리한 조선최초의 법전
경제문감	태조	정도전	조선의 정치 체제·조직에 관한 내용
경제육전		조준, 하륜	조선 최초의 공식적인 성문 법전
속육전	태종	하륜	경제육전 수정·보완
육전등록	세종	집현전	집현전에서 정리한 법전
경국대전	세조~성종	최항, 노사신	조선의 기본 법전
속대전	영조	김재로	경국대전을 보완
대전 통편	정조	김치인	경국대전·속대전 통합
대전회 통	고종	조두순	대전통편을 보완
육전조례	고종	조두순	대전회통에 누락된 법규와 사례 보완정리

7. ④

- (가) 효종 때는 북벌을 계획하며, 어영청을 확대, 강화시켰다.
- (나) 서인은 숙종 때 경신환국(1680) 이후 소론과 노론으로 분화되었다.
- (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실리외교)를 전개하였다.
- ④ 광해군(1608)에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

범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1결 16두를 징수하였는데 이후 12두로 감액, 정착되었다.

8. ③

제시문은 폐가입진(廢假入眞)에 대한 설명으로 급진파 사대부들이 주장하였다.. 폐가입진은 이성계 중심의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잇따라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하여 정치적 실권을 잡은 사건이다.

- 신진사대부는 관료 중심의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 © 윤소종은 급진파 사대부이다.

9. ①

- (가) 장수왕의 평양천도(427)
- (나) 신라 법흥왕의 연호, 건원(536)
- ② 살수대첩(612)
- ③ 법흥왕의 불교 공인(이차돈의 순교, 527)
- ④ 나제동맹(433)

10. ③

군전은 과전법에서 지방 거주 산직자(실무를 맡지 않은 관직)인 한량품관(閑良品官)에게 5 결 또는 10결의 수조권을 나누어주었던 토지로 과전법 시행 초기 단 한번만 지급되었다.

11. ①

<해동고승전>은 1215년(고종 2) 고려 때의 승려 각훈(覺訓)이 삼국시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12. ②

제시된 단체는 시전 상인들이 결성한 상권 수호단체인 '황국중앙총상회'(1898)이다.

연좌법과 노륙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 법이었다. 연좌법은 죄인의 가족에게 중형을 내리는 법이었고, 노륙법은 죄인의 스승, 아들, 남편, 아비를 죽이는 법이었다. 1898년 9월 11일 고종황제와 황태자가 커피를 마신 후 토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전 러시아 통역관인 김홍륙이 지목되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김홍륙의 독차사건'을 계기로 수구파 및 중추원 의장 신기선을 비롯한 34인의 의관이 연좌법과 노륙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올렸다. 또한 경무사 민영기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부녀자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참히 고문하였다. 결국 고문을 받던 공홍식이라는 이가 자살시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u>독립협회는 통상회에서 법부의 죄인에 대한 고문과 중추원의 노륙법 및 연좌법의 부활 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u>하였다. 이에 따라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좌법, 노륙법 부활 반대 집회는 10월 1일 중추원 문 앞에서 첫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중추원 앞에서 신기선의 사임과 고등재판소에의 고발을 의결함과 동시에 노륙법 및 연좌법 부활 시도를 규탄하였다. 결국 연좌법, 노륙법 반대 집회는 이후 수구파 정부를 몰아내고, 개화파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로 이어졌다.

연좌법, 노륙법 반대집회는 중추원, 고등재판소, 경운궁 순으로 계속해서 열렸다. 집회 참가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 약 1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또한 <u>종로 시전상인들의 단체인 **황국중앙총상회**와 협력하여 종로 네</u>거리 시전 상인들이 철시를 주도하였다. 심지어 소학교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수구파 정권에 위협을 가했다.

- 문화콘텐츠닷컴 -

13. ③

신간회는 1927년 결성되어 1931년 해소되었다. 혁명적(적색) 노동조합은 1930년대 전반기의 사실이다.

14. (1)

- 고려의 음서에는 관직 승진의 제한이 없었다.
- ② 음서는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공신자손이나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 음서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15. ②

<연조귀감>은 조선 정조 때(1771) 이진흥이 향리에 관계된 기록 및 그들 중 뛰어난 인물의 전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16. (4)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성종 7) 간행된 안동 권씨(安東權氏) 성화보이다.

내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종법이 있어 대수의 차례가 잡히고 적자와 서자의 자손이 구별 지어져 영원히 알수 있었다. 종법이 없어지고서는 족보가 생겨났는데 무릇 족보를 만듦에 있어 반드시 그 근본을 거슬러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따지고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 그 계통을 밝히고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구별하게 된다. 이로써 종족 간의 의리를 두터이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할수 있었다. - 안동 권씨 성화보 -

- ① 고려와 조선의 가족제도 여성의 제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조선은 재가녀의 자손과 손자의 과거 응시를 금지하였으며, 집안의 대를 잇는 자손에게는 상속분의 1/5을 더 지급하였다. 상속분 추가 지급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여야한다.
- 친영제도는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었다.

17. ④

제시문은 돈오점수, 정혜쌍수는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주장이다. 그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 명리(名利)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돈오점수 :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정혜쌍수 :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 ①② 천태종은 고려 중기 의천, ③ 성리학

18. ③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 다수를 이루고 <u>일부 말갈족도 지배층이 되거나 촌장의 지위에</u> <u>올랐다</u>.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의 지배층은 모두 380명인데 왕족인 대씨가 11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씨가 63명이고, 왕씨가 30명, 장씨가 20명, 양씨가 8명, 오씨가 13명, 이씨가 21명, 하씨가 4명 등으로 전체 발해인의 65%를 차지한다.

19.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78.8.15)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에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20. ④

돌무지 덧널 무덤(積石木槨墳, 적석목곽분) 은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무덤이다. 이 무덤은 도굴과 합장이 어려운 구조이며,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①③ 굴식 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
- ② 장군총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이다.